

## ● EU, CSRD 도입 공식화

- CSRD 도입되나 ESRS 일정 부분 제동 걸려 -

2023. 10. 18. EU의회 투표에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기준인 [ESRS 채택에 반대한다는 발의안이 2023. 10. 18. 부결되었고ESRS는 연말 이전 공식 채택되어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ESG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CSRD 도입이 확실시되어 유럽 소재의 기업들 5만여개 이상이 ESG정보공시 대상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EU 집행위는 2023. 10. 19. 산업부문별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채택 기한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적용도 연기되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 1. 배경

EU는 2017년부터 전 세계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의무화 지침이라 할 수 있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 보고지침)를 모든 EU회원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 NFRD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상장기업과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권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는데, 그 대상 기업은 약 12,000개였습니다. 그 후 EU는 ESG에 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하다 판단하게 되면서, 2021. 4월 NFRD를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지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를 ESG공시 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EFRAG는 2022. 5. 2.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CSRD의 핵심을 이루는 표준 보고 양식입니다.

그 후 EU 집행위원회는 2023. 6. 15. ESRS의 수정안을 공개하였고, EU의회와 EU이사회의 심의과정에 들어갔으며, [EU 집행위원회는 ESRS 최종본\(첫번째 세트\)을 2023. 7. 31. 채택](#)했습니다.

※참고 - 관련 화우 뉴스레터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초안 발표(22. 5)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0813>

· EU, ESRS 수정안 공개(23. 7.)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542>

## 2. 주요 내용

ESRS 첫번째 세트의 채택 이후 23. 10. 18.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ESRS에 제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CSRD의 이행은 공식화되었고 이로 인한 가장 주요한 변화는 전술하였듯, NFRD에 비교하였을 때 CSRD에 따라 ESG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 증가 정도는 약 4배에 달해, 5만여개의 기업이 CSRD에 따라 ESG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NFRD는 EU증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CSRD는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까지 대상이 되므로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할 이상이 자회사를 EU에 두어 CSRD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CSRD에 따른 공시 기준은 ESRS에 따라야 하며, 대상 기업은 물 사용-공해오염-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4 회계연도부터 NFRD 대상 기업은 CSRD를 도입해야하며, 2025 회계연도부터는 총 자산 2,000만 유로-총 매출 4,000만 유로-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적용대상 기업이 됩니다. 2026 회계연도부터는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 등도 CSRD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CSRD의 보고 표준인 ESRS에는 일정부분 제동이 걸렸는데, 업종의 종류와 관계없는 ESRS 첫 번째 표준 세트는 2024. 1월 이후 5만여개 기업이 따라야 하나, EU 집행위는 농림어업-석유 및 가스-자동차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ESRS의 두 번째 표준 세트에 대해 2024. 6. 20. 이었던 채택 날짜를 2년 연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U 집행위는 2024. 6. 30. 로 예정되었던 비EU기업들에 대한 ESRS 채택일도 2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3. 시사점

CSRD는 NFRD와 달리 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시키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담이 모여 금융업계 등 각종 기업들의 CSRD와 ESRS에 대해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 때문에 ESRS의 두 번째 표준세트가 2년 연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하는 ESRS 두 번째 표준세트가 연기되었다고는 해도, CSRD와 전 산업에 적용되는 ESRS는 여전히 2024.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p><b>신승국</b> 미국변호사</p> <p>T. (+82) 2 6182 8502 E. <a href="mailto:synn@yoonyang.com">synn@yoonyang.com</a></p>	<p><b>이근우</b> 파트너변호사</p> <p>T. (+82) 2 6003 7558 E. <a href="mailto:kleee@yoonyang.com">kleee@yoonyang.com</a></p>	<p><b>김정남</b> 수석전문위원</p> <p>T. (+82) 2 6003 8559 E. <a href="mailto:jnkim@yoonyang.com">jnkim@yoonyang.com</a></p>
<p><b>강석준</b> 변호사</p> <p>T. (+82) 2 6182 8505 E. <a href="mailto:kangsj@yoonyang.com">kangsj@yoonyang.com</a></p>	<p><b>양희</b> 컨설턴트</p> <p>T. (+82) 2 6003 7674 E. <a href="mailto:hyang@yoonyang.com">hyang@yoonyang.com</a></p>	<p><b>김현지</b> 컨설턴트</p> <p>T. (+82) 2 6003 7470 E. <a href="mailto:khji@yoonyang.com">khji@yoonyang.com</a></p>